

## 밸리댄스로 스트레스 털고, 열정을 키워요

가 을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던 금요일 밤. 인적 없는 손기정공원 안에 불 켜진 건물 하나가 있었다. 그곳은 바로 체육센터였다.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을 따라가자 맨살 드러난 옷을 입고도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다. 그리고 그 속에서 취미 생활도 일만큼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, 취미 안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벤처인 박기숙 사원을 만났다.

'미르의 전설'로 잘 알려진 온라인게임 개발 기업,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고객상담팀 박기숙 사원은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밸리댄스 강습실로 향한다. 황금같은 금요일 저녁, 친구들과의 약속에 하루 쯤 거를 만도 한데 박씨에게는 어림없는 소리다.

“금요일은 약속을 아예 안 잡아요.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강좌가 끝난 후에 만나죠. 제 의지로 시작한 일에 있어서는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요.”

작년 사내 송년회에서 밸리댄스 공연을 본 박씨는 무대를 장악하는 여성의 카리스마에 반해 그 길로 밸리댄스 강좌에 등록했다. 그녀와 함께 시작한 동료들도 몇 명이 있었으나, 얼마 가지 않아 모두 그만두었다. 하지만 박씨는 배울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고. 그녀에게서 듣는 밸리댄스의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.

“밸리댄스를 추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날 틈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. 재미는 말할 것도 없고요. 몸도 균형이 잡혀가고, 요즘엔 허리라인도 생기기 시작했어요.”

사정이 있어 강습받는 것을 잠시 쉬 적이 있었다는데, 그래서일까. 춤을 추는 박씨의 표정이 유난히 밝다.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다. 강습을 받지 않은 지난 몇 달은 도약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. 밸리댄스를 배우면서 점점 욕심이 생긴 그녀는, 이 취미를 살려 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강사자격증에 도전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. 하지만 강사반의 수강료가 만만치 않았고, 자금을 모으기 위해 강습을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. 새로운 도전을 위한 일보

후퇴라고나 할까. 그렇게 그리던 밸리댄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니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다.

“우선 감을 되찾기 위해 기초반에서 좀 더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. 한 달 후엔 강사반 수강을 할 예정입니다. 강사자격

증을 취득한

후엔 일주일

에 한두 번 퇴근

후 시간을 이용해

서 강사로 활동하

고 싶어요. 지금 저

에게 밸리댄스를 가

르쳐주고 계신 선생님도

투잡을 하는 중이거든요. 물론 지

금 다니는 회사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

문에 취미로 밸리댄스를 하면서 톱툭이 하

는 거죠.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제

생활에 큰 활력이 될 것 같아요.”

요즘 박씨는 체육센터에서 주최하는 공연

준비에 한창이다. 이달 말 외부 밸리댄스팀

과 함께하는 공연에서 박씨가 속한 강습반

수강생들이 마지막을 장식하기로 했다고. 며

칠 후면 공연 때 입을 옷이 배달되어 올 거라

며 한껏 들떠 있는 모습이 어린이이마냥 신나

보인다.

취미도 톱 부러지게 하는 박기숙 사원. 작은

움직임으로 열정의 춤을 완성하는 밸리댄스처

럼 그녀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듯하다.

